성적 향상의 본질:

메타인지와 태도

23343(백분위 80.5)에서 12321(백분위 95.5)까지,

현역·재수 독학으로 정립한 실전 공부법

정재호 지음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 학년

저자 소개

이름: 정재호

학력: 신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5 학번

성적 변화: 2024 학년도 수능 23343 (평균 백분위 80.5) → 2025 학년도 수능 12321 (평균 백분위 95.5)

문의: jaho0923@naver.com

머리말

성적 향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 질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답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필자 역시 현역부터 재수까지 독학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똑같은 고민을 했다. 남들만큼 문제를 풀고 인강을 들어도 성적표의 숫자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공부의 방향과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뜯어고친 뒤, 2024 학년도 수능 23343(평균 백분위 80.5)에서 2025 학년도 수능 12321(평균 백분위 95.5)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 책에는 거창한 재능이나 요행이 담겨 있지 않다. 수험 기간 내내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립한 성적 향상의 핵심 원칙 두 가지, 즉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메타인지'와 '실수를 줄이고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태도'만을 군더더기 없이 담았다.

인강 커리큘럼을 완주하고 문제집 권수를 늘리는 데 급급해 정체기를 겪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이 노트를 통해 자신의 공부 방식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길 바란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한다.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1. 메타인지: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자

1.1. '익숙함'과 '아는 것'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1.2. 과목별 약점 파악법 (백지복습 / 수학/ 국어)

1.3. 오답을 해부하는 4 가지 질문

2. 태도: 실수를 줄이고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자

2.1. 실수는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다

2.2. 실수를 차단하는 나만의 행동 원칙

2.3. 시험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실전 운영 전략

3. 나만의 행동 원칙 및 태도 정리하기 (단권화 시트)

부록. 성적 증명서 및 합격 인증

<들어가기에 앞서>

- 본 교재에 수록된 원칙들은 특정 과목의 지엽적인 스킬이 아니라, 전 과목 학습과 시험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실전 태도입니다.

- 문장 앞에 '#' 표시가 붙은 항목들은 수험 생활 내내 반드시 명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읽고 넘기는 데 그치지 말고, 본인의 평소 습관과 대조하며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메타인지: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자

첫 번째 핵심은 메타인지다. 메타인지란 자신을 제 3 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감정과 생각을 객관화하는 힘이다. 필자 역시 수험 초기에는 메타인지의 중요성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이를 실제 공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늘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치열한 정시 공부를 시작한 고등학교 2 학년부터 재수까지 총 3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깨달았다.

1.1. '익숙함'과 '아는 것'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 공부는 이미 아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과정이다.

언뜻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이 본질을 놓친다. 인강 강사의 커리큘럼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계획한 문제집을 끝까지 다 푸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정해진 공부량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떤 부분을 여전히 모르는지 '의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눈으로 읽어서 익숙한 것과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고, 강의를 듣고, 교재를 반복해서 회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1.2. 과목별 약점 파악법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는 과목의 특성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점검할 수 있다.

 # 암기 과목은 반드시 '백지복습'을 활용하자.

책이나 교재를 덮고 배운 내용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에 직접 적어보는 것이다. 이때 펜이 멈추거나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정확히 이해하거나 암기하지 못한 약점이다. 눈으로 읽을 때는 다 아는 것 같던 내용도 막상 백지에 적어보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 수학은 반복적으로 막히는 특정 단원과 유형을 추적하자.